

수능 D-30 '엄마의 기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을 한 달 앞둔 17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다.

▶ 관련기사 1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한다더니...

롯데리아·막걸리 업체 미용실에도 자금 지원

국회 제출 현황 자료 분석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곁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와 동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4년 9월~2016년 8월 지원한 1607개 업체 가운데 266개 업체에는 설립목적·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졌다.

현대자동차가 맡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목적 외 업종에 자금을 지원하다 지적됐다. 광주 혁신센터는 롯데리아, 무알코올 음료·막걸리 생산업체, 미용실 등에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과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고도화를 이루고 고용 증대에 힘써 파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목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간 것이다.

또 두산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노융합·해양플랜트·기계설비·중공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멸치·발효콩·매실 음료·건강식품 등 9개 업체의 판로를 지원했다.

한화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69개 업체 중에는 단 2곳만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태양광산업과 연관이 있었다. 나머지는 젓갈, 한과, 소금, 호박즙 등을 한화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을 지원하거나, 상품표지 디자인에 자금을 집행했다.

삼성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첨단소재·IT 부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결혼식 전문업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롯데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부여·안동에 있는 닭고기·반건과류 업체를 지원했다.

SK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년간 3업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세종IT시티구축 주요기업 창출이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은 1곳뿐이고 나머지 2곳은 자동차부품과 칩솔모 제작업체였다.

한편 GS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 관련 업체 52곳, 석유화학 관련 업체 14곳 등 모두 71개 업체에 지원했다.

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지원하고 그걸 실적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17개 대기업을 유치해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로 거창하게 홍보만 한 속 빈 강정과 같은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사업은 지역의 장점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說說講는 안철수·반기문 연대설 ▶3면
부풀려진 특성하고 취업률 ▶6면
상금 1억 '제1회 K-콩쿠르' ▶18면

광주·전남 고액 지방세 체납 539명·274개 법인·364억

19명 공개 앞두고 5억 납부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양 지역 모두 대상자가 늘었다.

광주지역 체납 총액은 56억6000만원으로 개인 178명, 법인 67개였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액이 73%인 41억원을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원, 평균 체납액은 2300만원에 이른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60대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2개(3억9900만원), 제조업 10개(1억9000만원), 도소매업 8개(1억6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이 213명(개) 39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사이 체납자도 10명(개)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4년 114명(101억3600만원), 지난해 44명(43억8200만원)보다 늘었다.

전남지역 체납 총액은 308억원으로, 개인 361명(163억원), 법인 207개(145억원)

■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	법인	체납액
광주	178명	67개	56억원
전남	361명	207개	308억원

였다. 시·군별로는 여수 81명(34억원), 목포 74명(59억원), 순천 70명(59억원) 등의 순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던 지난해에는 60명(46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범위가 확대돼 숫자가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4억원(131명), 도소매업 68억원(125명), 제조업 52억원(97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8억원(568명) 가운데 80%에 이르는 244억원(304명)은 결손처리된 상태로 관리중이다. 체납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부도·폐업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이면 국제 체납액은 1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라며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19명은 명단공개 예정을 통보받고 5억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장로 박스형 전력기 철거 권기 편해진다

광주시·한전 업무협약

광주 충장로가 깔끔해진다. 그동안 충장로 곳곳에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줬던 박스형 전력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7일 오전 한국전력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한전과 '지역공헌형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원익 한전 사장, 충장로 상가변화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전스테이션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전기설비를 한 장소에 모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배전 시스템이다.

한전은 이날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충장로 1가와 4가에 건물을 신축해 차세대 지역공헌형 배전스테이션 2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광주시는 배전스테이션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협조한다. 새롭게 설치될 배전스테이션에는 다수의 전력기기를 건물 내 또는 지하에 집적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문화휴식공간, 에너지신사업 홍보관 등이 설치된다.

/최재욱기자 lion@kwangju.co.kr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 일시 : 2016. 10. 23(일) 08:0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374-6685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차희준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